



▲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시대를 빨리 앞당기는 것 뿐이라고 강조하는 사이버텍 홀딩스의 김상배사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설립됐다. 사이버텍 홀딩스의 김상배사장은 그의 발빠른 추진력과 21세기를 대비하는 의지로 95년 9월 설립이후 불과 1년반만에 회사의 구체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대 항공공학과를 졸업한 후 전공은 살리지 못했지만 동창중에서 비행기를 가장 많이 탄 인물로 알려져 있는 김사장은 럭키금성상사(LG상사 전신)에서 컴퓨터 수출업무를 하다가 삼보컴퓨터 소프트웨어사업부에서 S/W사업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소프트웨어를 이루는 DB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93년 11월 DB구축 전문회사인 3SOFT사를 설립했다. 이곳에선 워드프로세서기술이 외국에 뒤질 때 한글문헌 정보검색시스템 개발보다 신뢰성있는 정보 제공사업

80년대 초가 PC혁명이었다면 90년대 중반부터 불어닥치기 시작한 인터넷혁명은 21세기가 정보화전쟁 시대임을 알리는 선전포고와도 같다. 80년대 초 PC혁명을 일으키며 전 지구를 발각 뒤집어 놓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도 95년 말에 일기 시작한 인터넷 열풍은 80년대 PC혁명 때처럼 시장이 크다는 데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그 규모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주인공은 이제까지 알려진 인물이 아니라 아직 누구도 모른다고 인정한 바 있다.

### 전자상거래시대의 주역

특히 인터넷은 적절한 아이디어 하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시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창업을 꿈꾸는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사이버텍 홀딩스(대표 金湘培)도 이런 꿈의 시장에 비전 하나로 뛰어난 인터넷 관련 벤처기업의 하나다. 사이버텍 홀딩

### 기술개발성공사례

## 인터넷시대... 꿈의 시장에 도전 사이버텍 홀딩스

인터넷 혁명에 따른 21세기의 새로운 정보화전쟁에 뛰어난 벤처기업 사이버텍 홀딩스. 사이버텍 홀딩스는 인터넷과 앞으로 다가올 정보고속도로에서 멀티미디어 정보교환과 전자상거래를 구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12개 주주사로부터 합자한 자본금 15억원으로 출발했다. 2002년 이전에 전자상거래 세상이 올 것이라고 전망하는 김상배사장은 전자상거래 실현이야말로 지금의 경제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스는 인터넷과 앞으로 다가올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에서 멀티미디어 정보교환(multimedia information exchange)과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를 구현하는데

을 시작했다. 외국의 우수한 워드프로세서나 그룹웨어시장이 국내에서 활기를 띄지 못한 이유는 바로 우리 민족성과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온 현상이라고 볼 때 우리만이 알 수 있는 어

회의 장점을 살려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단어 하나에 딸린 반대어, 비슷한 말, 광의어 등의 관련어를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하는 시스템이다.

### 자본금 15억, 12개 주주사 합자설립

김사장은 3 SOFT사에 만족하지 않고 인터넷관련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싸이버텍 홀딩스를 설립했다. 주요 마케팅 영역이 될 정부기관, 정보통신업체, 기업체, 백화점, 은행, 언론사, 방송국 등 12개 주주사로부터 합자한 자본금 15억으로 출발한 싸이버텍 홀딩스는 멀티미디어응용 솔루션을 제공하기에 앞서 우선 인터넷관련 컴포넌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싸이버텍 홀딩스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merchant system'과 인터넷을 통해 영화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publishing system', 인터넷을 통해서 신이나 안부를 전할 수 있는 'community system'이다.

백화점에서 인터넷을 구축한다고 할 때 머천트시스템기술을 100%로 보면 커뮤니티시스템은 3%, 퍼블리시시스템은 5% 정도로 하면 되나 학교에서 인터넷을 실현한다고 하면 커뮤니티시스템이 100%면 머천트시스템은 15%, 퍼블리시시스템은 8~90% 정도로 시스템을 어떻게 모자이크 하느냐에 따라 싸이버호텔, 싸이버뉴스, 싸이버은행이 되는 전자상거래가 될 것이라고 김사장은 전한다. 2002년이 되기 전에 전자상거래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김사장은 전자상거래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인터넷관련 비즈니스솔루션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싸이버

텍 홀딩스의 머천트시스템은 그 만큼 앞선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를 하다보면 오픈시스템인 인터넷의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베이스와 개인의 비밀번호의 보안문제이다. 싸이버텍 홀딩스는 그래서 비밀번호를 암호화해서 해커들로부터 정보도난 방지를 위해 보안기술을 갖춘 Basic컴포넌트인 Firewall을 개발해냈다. 일찌기 스위스가 GNP 1위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개인의 정보를 철저히 보안해준 아이템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산업자본주의사회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한다.

### 개인 비밀번호 보안에 최선

차기 정보화사회에서는 멀티미디어 지식과 정보가 주식 및 현금을 대체할 것으로 보고 이런 기술을 창출해내는데 싸이버텍 홀딩스가 이 연구개발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구체화되어 96년 11월15일에는 한국과학기술원 내에 ICEC를 발족,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모든 기술이 미국에 뒤지더라도 정보검색기술, 인식기술, 에이전트기술, 보안기술에서만은 미국보다 앞서 세계시장을 상대로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포부를 피력한다. 현시점에서 보면 전자상거래시대는 뜬구름 잡는 식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CATV보급률이 60%로 미국을 앞선 것으로 볼때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무척 희망적이라고 전한다.

전자상거래가 전체소비의 15% 이상이면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교통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전자상거래야말로 하루빨리 앞당겨야 할 산업이라고 전한다. 앞으로는 백화점 세일이라고 차를 가지고 우르르

나가지않아도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완벽한 유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도심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은행이나 백화점, 언론사 등이 싸이버텍 홀딩스의 주주사가 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그동안 싸이버텍 홀딩스의 주요 연구실적은 경향/중앙신문의 뉴스 서비스구축, 나산백화점, 대한생명, 싸이버텍, 정보산업협회 asocio관련 홈페이지 구축과 웹머천트시스템, 웹커뮤니티시스템, 웹퍼블리시시스템개발 등이 있다. 90년대 초가 소프트웨어엔지니어가 중요했다면 이제부터는 많은 정보를 분류, 정리할 수 있는 도서관련 전공자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상배사장은 개인적으로 인터넷 관련 업체는 공통처럼 커질 필요가 없다고 보며 3 SOFT사와 별도로 싸이버텍을 설립할 때도 그랬고 96년 2월 미국 실리콘밸리 내에 설립한 SAGEWARE와 유통업체와 은행을 하나로 묶는 META-LAND라는 업체도 그래서 별개의 독립사로 등록했다.

수박같은 회사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회사마다 완성된 전문분야를 이루는 포도알과 같은 업체들이 모여 전체적으로는 포도송이와 같은 기업을 일궈내게끔 꿈이라는 김상배사장은 그래서 '싸이버텍 홀딩스'라는 회사명도 여기서 따온 것이라 한다. 머지않아 찾아올 전자상거래시대를 대비하여 기술력만큼은 싸이버텍 홀딩스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시작했다는 김사장은 앞으로 산재해 있는 할 일에 무척이나 희망차보였다.

하정실(본지 객원기자)